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강 명 숙

2018년 8월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최 보 영

강 명 속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강명속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년 8월

<국 문 초 록>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강 명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대구, 제주지역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6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회수 된 650부 중 무응답 또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22부를 제외한 62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로는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제작한 척도를 임선화(1987)와 김충현(2011)이 재편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0)의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척도와 Bryant(1982)의 정서 공감 척도를 박성희(1997)가 변안하고, 수정·보완한 공감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문용린(1997)이 표준화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서지능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 공감능력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는 공감능력 및 정서지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공감능력은 정서지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일수록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의 수준이 높으며,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아졌다.

둘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은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간의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아동의 공감능력을 통한 간접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부의 애정-적대,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간의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공감능력을 통해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모의 애정-적대, 자율-통제, 합리-비합리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간의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아동의 공감능력을 통한 간접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일 경우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공감능력이 높은 아동일수록 정서지능이 높았으며 부모를 포함한 주 양육자에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부모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공감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며 공감능력이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을 동시에 살펴 정서지능 향상에 통합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 사이에서 공감능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의 정서지능 증진을 위해 가정과 학교장면에서 아동의 공감능력 발달을 돕는 교육, 상담전략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제공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부모양육태도, 정서지능, 공감능력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5
II. 이론적 배경	6
1. 부모양육태도	6
2. 정서지능	8
3. 공감능력	14
4. 부모양육태도, 정서지능, 공감능력 간의 관계	19
III. 연구방법	25
1. 연구대상	25
2. 측정도구	26
1) 부모양육태도 척도	26
2) 공감능력 척도	27
3) 정서지능 척도	28
3. 자료 분석	30
IV. 연구결과 및 해석	31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31
2. 부모양육태도, 공감능력, 정서지능 간의 상관관계	33
3.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35
1) 부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35
2) 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45

V. 논의	55
1. 결과 및 의의	55
2. 제한점 및 제언	59
VI. 참고문헌	60
Abstract	70
부록(설문지)	73

표 목 차

표Ⅱ-1. 정서지능의 4영역 4수준 16요소 모형	11
표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26
표Ⅲ-2.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7
표Ⅲ-3. 공감능력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8
표Ⅲ-4. 정서지능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9
표Ⅳ-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32
표Ⅳ-2. 부의 양육태도, 공감능력, 정서지능 간의 상관관계	33
표Ⅳ-3. 모의 양육태도, 공감능력, 정서지능 간의 상관관계	34
표Ⅳ-4. 부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35
표Ⅳ-5.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37
표Ⅳ-6.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39
표Ⅳ-7. 부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41
표Ⅳ-8. 부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43
표Ⅳ-9. 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45
표Ⅳ-10.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47
표Ⅳ-11.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49
표Ⅳ-12. 모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51
표Ⅳ-13. 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53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모형	5
그림 IV-1. 부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37
그림 IV-2.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39
그림 IV-3.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41
그림 IV-4. 부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42
그림 IV-5. 부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45
그림 IV-6. 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46
그림 IV-7.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48
그림 IV-8.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50
그림 IV-9. 모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52
그림 IV-10. 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5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당신의 아이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갖고 우리 사회의 교육을 살펴보면 여전히 지식 중심의 교육으로 아동의 무한한 잠재능력 중에서도 지적 능력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교육부(2013)는 ‘꿈과 끼를 이루는 행복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에 따르면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 부담’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42.9%에 달했으며 통계청의 ‘2017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사교육 참여율은 67.8%에 달한다(세계일보, 20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실태 조사’를 보면 1주일 동안 학원 공부와 과외를 합친 횟수가 4회 이상이 80%, 13회 이상도 15.7%가 되었다. 전교조는 “이것은 학생들이 과도한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며 “학교 교육에 대한 낮은 신뢰, 입시 경쟁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의 부재 등의 복합적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7).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지식 위주의 인지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어려서부터 많이 알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과도한 지식을 자녀에게 주입시키고 있다(박효주, 2011). 게다가 이혼 및 맞벌이와 핵가족화의 증가로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족관계에서의 정서적인 접촉이나 바람직한 인간관계, 긍정적인 훈육 등을 접할 기회는 줄어들게 되었다(지소라, 2009). 이러한 지식 위주의 교육적 특성과 가족 구성의 변화로 인해 박효주(2011)는 아동들은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이나 감정이입, 긍정적 사고 훈련 등을 받을 기회를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고 하였으며, 장영란(2005), 지소라(2009)는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며, 공격적이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인지적 학업성취가 성공의 기준이 되었던 20세기와 달리, 급

변하는 21세기의 정보화-세계화 시대에선 지적 지능만으로 문제점을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하였고 그에 정서지능의 개념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이귀숙, 정현희, 2006; EBS, 지식채널, 2017).

Salovey와 Mayer(1990)는 정서지능을 “정서라는 정보를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능력의 소유자는 적응을 잘하고 정서적으로 성숙되었으며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유능한 사람이라 하였으며(EBS, 지식채널, 2017), Goleman(1995)은 “한 사람의 성공을 예측할 때 지능검사나 학력평가에 의해 측정된 지적 능력보다는 ‘인성’이라는 말로 지칭되는 ‘마음’의 질이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곽윤정, 1997). Goleman(1995)은 “성공의 80%를 정서지능이 좌우한다”고 하였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야 되며 인간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갈등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정서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곽윤정, 2004). 또한, 정서지능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능력은 사회적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적응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서를 처리할 수 있게 하며(문용린, 1997), 나아가 적응과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문용린, 1997; Salovey & Mayer, 1990).

이러한 정서지능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작되며 아동기의 가정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김효정, 2014).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 최초로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이며 가족 구성원과의 생활을 통해 인간관계, 가치관, 사회규범 등이 형성되는 곳으로 일생동안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곳이다(양애경, 2003). 또한, 가정은 인간발달과 사회성 및 정서를 포함한 성격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적 환경이며 이러한 인적 환경은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때 갖게 되는 양육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자녀의 관계의 질을 결정해 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지적·정서적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추성경, 2011; Schaefer, 1965).

양육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 때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강인향, 2007; 이영조, 2011)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부모로부터 양육 받은 아동들이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간에 갈등이 적으며 정서적 안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김은주, 2016). 또한, 추성경(2011)은 자녀가 부모를 애정적, 수용적으로 인식할 경우에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이희연과 장경은(2015)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정서지능이 높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을 연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공감능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Rogers(1957)는 공감을 ‘타인의 입장이 되어 타인의 관점에서 그의 느낌을 나의 것처럼 느끼고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으로 인간관계의 핵심요건 중 중요한 한 가지로 강조하였다(김경미, 2011). 공감은 타인의 고통, 어려움, 생각 등을 이해하고 느끼고 상대방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 할 수 있게 한다(지소라, 2009). 이러한 공감능력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한 사회·정서적 경험에 큰 영향을 받으며(Hoffman, 1987), 성장과정에서 양육자로부터 자신이 이해받고 수용되고 공감 받은 경험과 심리적 안정감 등에 의해 습득되고 발달된다(권정연, 2001).

부모양육태도와 공감능력을 변인으로 삼은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수용적(김성일, 2008),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강정희, 2009), 성취형, 친애형, 자율형 양육행동(지소라, 2009) 등이 아동의 공감능력 발달을 촉진한다고 하였으며, 감독, 과잉간섭, 학대, 방치 등의 양육행동은 공감능력 발달을 저해한다고 하였다(조혜리, 2009; 최인호, 김진이, 2013). 또한, 부모양육태도를 수용적으로 지각한 아동의 열등감이 거부적으로 지각한 아동의 열등감보다 낮았으며(양미라, 2007)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면 사회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공감능력이 발달함을 알 수 있었다(지소라, 2009).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 본 결과, 부모양육태도는 아동의 공감능력과의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혹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감능력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많은 반면, 아동의 정서지능과 공감능력과의 관계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하지만 정서지능과 공감능력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지능과 공감능력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가령,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일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유진희, 2016), 공감능력 상위집단이 하위 집단보다 정서지능의 하위변인 중에서 정서표현을 제외한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능력이 높음을 확인 할 수 있다(한중순, 2005). 이는 공감과 정서지능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감능력을 통해 정서지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민경(2006)의 연구는 공감 및 자기표출 훈련 집단 프로그램이 친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키고 정서지능 중 감정이입과 정서활용, 정서조절능력을 향상 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의 높은 공감능력은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동시에,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공감능력이라는 특성이 두 변인간의 매개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높은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에 기여하고 이 때 공감능력은 정서지능의 발달을 돕는 중요한 요인임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역할을 확인하고, 공감능력을 통해 정서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경로를 밝히기 위하여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매개효과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을 동시에 살펴 정서지능 향상에 통합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 사이에서 공감능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의 정서지능 증진을 위해 가정과 학교장면에서 공감능력 발달을 돕는 교육, 상담전략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 공감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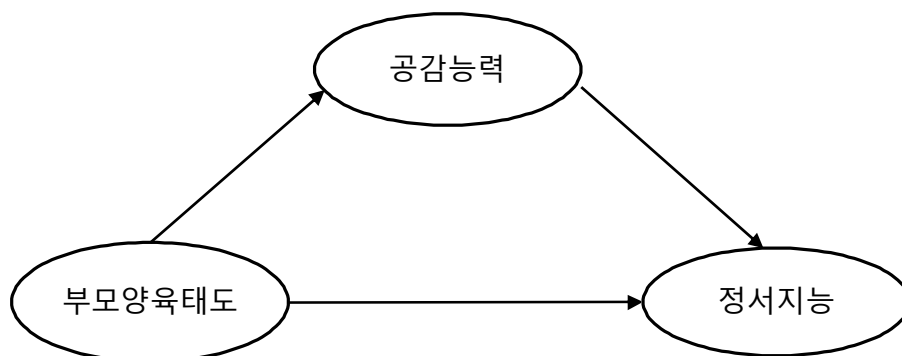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 공감능력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가설 2-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2-2. 초등학생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부모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공감능력을 매개로 하여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I-1>과 같다.



<그림 I-1>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양육태도

1) 부모양육태도의 개념과 유형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대리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외현적이고 내현적인 행동이며 자녀에게 보이는 반응과 자녀에 대한 요구사항이다(김효정, 2014; 오성심, 이종승, 1982). 즉,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다(김지애, 2003; 박효주, 2011; Becker, 1964).

Schaefer(1959)는 부모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으로 정의내리고 있고 이는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아동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추성경, 2011). 부모의 양육태도에는 부모의 성격, 정서, 가치관, 신념 등이 반영되며, 가족 구성의 형태, 가정 분위기, 가정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 부모와 자녀의 개인적 조건 등과 깊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김영주, 2014; Becker, 1964). 부모의 양육태도를 최초로 체계화한 Symonds(194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지배-복종의 태도로 구분하여 아동과 정서적으로 따뜻한 관계를 갖는 것을 수용적 태도라 하고, 애정은 결핍된 채 자녀에게 민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거부적 태도로 보았다. 자녀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을 지배적 양육태도라 하였고, 자녀에게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을 복종적 양육태도로 보았다. Symonds(1949)은 ‘양육태도에 있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나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김민지, 2012).

Schaefer(195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자율적 태도, 애정적-통제적 태도, 자율적-적대적 태도, 통제적-적대적 태도로 구분하였다. 애정적 태도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평등한 관계, 긍정적인 정서표현 등을 의미하고, 적대적

태도는 자녀를 무시하거나, 부담주기, 처벌 등의 부정적인 정서표현 등을 의미한다. 자율적 태도는 자녀가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대하는 태도이고, 통제적 태도는 자녀에 대한 불안, 성취요구,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후의 많은 학자들에게도 Schaefer의 부모 양육태도 모형은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학자들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Schaefer의 모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김성일, 2004).

국내의 연구에서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Schaefer(1959)의 애정-적대, 자율-통제의 두 가지 양육차원과 정원식(1974)이 분류한 가정의 심리적 과정 중 한 요인인 성취-비성취 차원을 포함함으로써 지금까지 유형화된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가지 차원으로 거의 포함하여 요약하였다(김효정, 2014).

오성심과 이종승(1982)의 4가지 양육태도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녀를 수용적으로 대하고 헌신적인 태도로 자녀와 친밀하게 지내며 화목한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적대적 양육태도는 자녀를 거부하거나 무시, 무관심하며 비난이나 처벌을 자주하는 태도이다. 둘째, 자율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의견과 권리를 존중하며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하지 않지만, 통제적 양육태도는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며 간섭과 제한이 많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태도이다. 셋째, 성취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태도이다. 비성취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자녀의 성취 목표 달성에 무관심하며 비협조적인 태도이다. 넷째, 합리적 양육태도는 자녀가 갖는 생각과 행동의 이유를 중시하는 태도로 자녀와의 약속을 중시하고 교육에 있어 근거 제시를 강조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 비합리적 양육태도는 매사에 이유를 불필요하게 생각하며 결과만을 중요시하고 자녀에게 감정적이고 비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2)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부모가 지각한 것과 자녀가 지각한 것의 두 가지 측정방법이 있는데, 권순명(1994)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받아

들일 때 그들의 개인적 의미에 의해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제 태도와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Midinnus(1965)는 부모가 실제로 양육한 사실보다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했는지에 따라 자아수용이 달라지며,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으며, 허묘연(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양육태도보다는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 실질적으로 중요하며 역기능적 부모양육태도는 다양한 문제행동 및 정신 병리와 연관된다고 하였다. 안현지(1999)는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녀의 지각에 따라 실제적인 영향이 좌우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오효선(2001)은 자녀가 부모나 양육자가 나타내는 태도나 행동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양육태도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오성심과 이종승(1982)의 연구가 지금까지 유형화된 부모의 양육태도 차원을 거의 포함한다는 것에 기인하여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양육태도 유형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2. 정서지능 (emotional intelligence)

1) 정서지능의 개념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은 정서(emotion)와 지능(intelligence)이 합쳐진 개념으로 ‘정서를 통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즉, 자신의 내부에 감정이 발생했을 때 어떤 감정이 어떤 수준으로 왜 일어났는가를 인식하는 능력, 자신의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달래고 조절하는 능력, 상대방의 기분이나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을 총칭하는 말이다(유진희, 2016).

Gardner(1983)는 다중지능이론요인에 개인내적 지능과 대인관계 지능을 포함

시켜 정서를 지능으로 연구하며 ‘지능’의 의미를 재 개념화하였다. 이후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을 공식화한 Mayer와 Salovey(1990)는 정서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점검하고 변별하며 자신의 행위와 사고를 유도하는데 그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초기 단계의 정의에서는 감정에 대한 사고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에 따라, Mayer와 Salovey(1997)는 정서지능을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 정서의 사고 촉진 능력, 정서 및 정서와 관련된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시 정의하였다(김순영, 2013; 김충현, 2011).

Goleman(1995)은 ‘Emotional Intelligence’ 라는 단행본을 출판하면서 정서지능의 개념을 대중화하며 정서지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살피는 정서의 자기 인식능력, 둘째,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정서의 자기조절능력, 셋째, 목표에 충실하게 정서를 유도할 수 있는 정서의 자기 동기화 능력, 넷째, 남의 감정 및 관심사를 세심하게 살피고 배려할 수 있는 감정이입능력, 다섯째, 감정표현을 잘 조절함으로써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인관계능력이다.

문용린(1997)은 정서지능에 대한 Mayer와 Salovey(1990; 1997)의 초기 개념과 수정개념, Goleman(1995)의 견해를 종합하여 정서지능의 구성요소를 ‘정서인식 능력, 정서표현 능력, 감정이입 능력, 정서조절 능력, 정서활용 능력’ 다섯 가지로 한정하였다. ‘정서인식능력’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이고 ‘정서표현 능력’은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이나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다. ‘감정이입능력’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타인과 같은 정서를 적절히 경험해보고 내적 경험에 따라 의사소통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다. ‘정서조절능력’은 의식적인 통제 과정으로서 특정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분과 정서 상태를 적응적으로 이끌어 내는 능력이며 ‘정서활용능력’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 자신의 정서와 기분을 적응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문용린, 1997).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대중과 학문 공동체에서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김미희, 2010; 오지선, 2015). 학문 공동체

내에서는 최근까지 개념에 대한 합의와 측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노력에는 정서지능의 명확한 개념화, 정서지능의 결정 요인, 정서지능과 다른 심리 구인들 간의 관계, 정서지능의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오지선, 2015; Roberts & Matthews, 2001).

2) 정서지능의 구성요소

Mayer와 Salovey(1990)는 초기모형에서 정서지능의 구성요소를 ‘정서의 인식과 표현,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3영역 10요소 모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서의 인식과 표현능력’은 대상에 따라 자아에 대한 언어적·비언어적 인식과 표현, 타인에 대한 비언어적 인식과 감정이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서의 조절 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이며, 이는 정서조절능력이 기분의 상태를 보다 적응적으로 이끌어내고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하여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적응을 위한 능력인 정서지능의 구인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정서지능 활용 능력’은 융통성 있는 계획 세우기, 창의적 사고, 주의 집중의 전환, 동기화 등에서 정서를 적응하도록 이끄는 능력이다.

Mayer와 Salovey(1997)는 이후 정서지능의 요소 속에는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만 논의하고 정서에 대한 사고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과 개념이 애매하다는 점을 보충하여 정서지능 모형을 4영역 4수준 16요소 모형으로 수정하여 최근 모형을 발표하였다(김영주, 2014; 김태정, 2006).

최근 모형에서 정서지능의 구성요소 중 첫째, ‘정서의 인식과 표현’은 정서지능의 가장 하위영역으로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시작으로 타인의 정서까지 인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서의 사고촉진’은 정서가 지능과 다르게 인간의 다양한 문제해결과 목표설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말한다. 셋째, ‘정서지식의 활용’은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다양한 정서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발생하게 된 원인과 결과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넷째, ‘정서의 반영적 조절’은 정서지능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서와 지능의 성장을 같이 도모하는 의식적인 정서조절과 관련된다. Mayer와 Salovey(1997)의 정서지능 4영역 4수준 16요소

모형은 <표Ⅱ-1>과 같다.

<표Ⅱ-1> 정서지능의 4영역 4수준 16요소 모형

영역	요소
영역Ⅰ: 정서의 인식과 표현	수준1: 자신의 정서를 파악하기 수준2: 자신 외부의 정서를 파악하기 수준3: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수준4: 표현된 정서들을 구별하기
영역Ⅱ: 정서의 사고 촉진	수준1: 정서 정보 이용하여 사고의 우선순위 정하기 수준2: 정서를 이용하여 판단하고 기억하기 수준3: 정서를 이용하여 다양한 관점 취하기 수준4: 정서를 활용하여 문제해결 촉진하기
영역Ⅲ: 정서 지식의 활용	수준1: 미묘한 정서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명명하기 수준2: 정서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기 수준3: 복잡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이해하기 수준4: 정서들 간의 전환을 이해하기
영역Ⅳ: 정서의 반영적 조절	수준1: 정적, 부적 정서들을 모두 받아들이기 수준2: 자신의 정서에 거리 두거나 반영적으로 바라보기 수준3: 자신과 타인의 관계 속에서 정서를 반영적으로 들여다보기 수준4: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기

Mayer & Salovey(1997)

이 모형은 정서와 사고를 더 명백하게 관련시켜 정서지능과 지능과의 공통성을 부각시키면서 일반지능과의 변별성을 높이고 정서지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위계와 수준으로 배열하였다는 점에서 종전의 모형과는 크게 다르다 (곽윤정, 2004; 김영주, 2014; 김윤정, 2015).

Goleman(1995)은 정서지능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로 ‘정서인식능력, 감정조절능력, 자기 동기화, 감정이입, 대인관계기술’을 제시하였다. ‘정서인식능력’은 자신에게 감정이 일어날 때 감정자체를 인지하는 능력으로 정서지능의 근본바탕이 되며 심리적 통찰과 이해의 과정이다. ‘감정조절능력’은 인식된 자신의 감정을 효

울적으로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분노, 우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과도 유사하다. ‘자기 동기화’는 어려움을 참아내어 자신의 삶의 목표나 성취를 위해 감정을 절제하고 참아내는 억제와 긍정적 사고의 능력이다. ‘감정이입능력’은 타인의 입장이 되어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객관적으로 통찰하여 자신의 것처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쉽고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다. ‘대인관계기술’은 타인의 감정을 관리하는 기술로 인식한 타인의 감정에 적절히 대처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서 정서지능의 가장 상위단계이다.

정서지능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 문용린(1997)은 정서지능에 대한 Mayer와 Salovey(1990; 1997)의 초기모형과 최근모형, Goleman(1995)의 견해를 종합하고 ‘감정이입’ 영역을 추가하여 정서지능의 구성요소를 ‘정서인식능력, 정서표현능력, 감정이입능력, 정서조절능력, 정서활용능력’ 5가지로 한정하였다. 여기에서 ‘감정이입능력’은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서인식 및 표현영역에서 독립적으로 부각시킨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김효정, 2014; 문용린, 1997).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서인식능력’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둘째, ‘정서표현 능력’은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이나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다. 셋째, ‘감정이입능력’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타인과 같은 정서나 적절한 정서를 경험하여 내적 경험에 따라 의사소통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다. 넷째, ‘정서조절능력’은 의식적인 통제 과정으로서 특정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분과 정서상태를 적응적으로 이끌어 내는 능력이다. 다섯째, ‘정서활용능력’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 자신의 정서와 기분을 적응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을 문용린(1997)의 구분에 따라 정서인식능력, 정서표현능력, 감정이입능력, 정서조절능력, 정서활용능력의 5가지 영역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아동의 정서지능

정서지능은 지능, 성격과 같이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기의 다양한 경험과 교육에 의해 발달하며(김순영, 2013; Mayer & Salovey, 1997) 정서지능의 발달과 학습은 유아기와 아동기에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곽윤정, 1997).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서지능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발달 특성을 연구한 임은혜(2002)는 연령이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발달하는데, 정서지능 영역 중 정서인식과 표현 능력이 가장 먼저 발달하고 정서의 반영적 조절영역이 늦게 발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의 경우, 자신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정서조절을 잘하며, 학업은 물론 교우 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경미, 우남희, 1997). 또한,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은 사고에 대한 정서촉진능력 및 정서조절 능력이 높기 때문에 자기통제력 및 집중력을 잘 발휘하여 학업 성취도 수준이 높다(홍주영, 황준성, 2012). 이 외에도 초등학생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한다고 보고하였고(기재희, 2015; 서미화, 2007; 송화선, 2008; 차성혜, 2009)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김은혜, 2015; 박현진, 2017; 최서원, 2018). 특히, 아동의 경우 학교에서의 학업부진, 또래관계에서의 문제, 충동적이거나 위축적인 행동, 사회 적응상의 문제 등이 정서와 관련되며(Asher & Parker, 1987), 아동이 겪는 정서적 문제는 아동기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도 부적응 요인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생활에 있어서 정서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이수정, 2008). 이에 반해 정서지능이 낮은 아동은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이해와 조절을 못하여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사회적 기술의 결여로 대인 관계가 적절하지 못하며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 또한 새로운 상황에서 지나치게 수줍어하거나 위축되고 과잉행동, 공격성, 비행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인다(문용린, 1997).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에 따른 아동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 인식 및 표현 능력과 관련해 자기 개방을 위해서는 우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알고 적절히 반응하며,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한다. 즉,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말이나 표정 또는 행동으로 상황에 적절하게 표현하는 아동은 친구들로부터 리더로서 인정을 받으나(오영미, 1997) 친구의 반응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

면 소외되거나 놀림을 받게 된다(최석란, 2002). 둘째, 정서조절과 관련하여 타인의 정서와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조절하는 능력을 가진 아동은 공격적인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또래에 더 많이 수용되어 원만한 또래관계를 맺는다(김수정, 2011; Hubbard & Coie, 1994). 셋째, 감정이입 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게 되나, 상대의 감정을 잘 파악하는 아동은 학교나 사회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된다(김태경, 2006; Rosental, 1997). 이처럼 아동기의 정서지능의 발달은 개인적·사회적 적응 및 성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3. 공감능력

1) 공감능력의 개념

공감(empathy)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생겨났지만, 그 어원은 초기 그리스 시대의 슬픔 또는 고통의 감각과 결합된 정서 또는 열정을 의미하는 ‘empathia’에서 찾을 수 있다(김미자, 2004). 공감이라는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공유된 감정’이라는 뜻이다. 비록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의 같은 내용과 수준으로 이해하고 느끼며 표현하는 것으로 이는 친사회적 행동이나 도덕성, 양심의 발달을 촉진하며 공격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는 요소가 되고(김민지, 2012) 인간관계를 심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정현진, 2010).

이러한 공감은 학문적 발달과 함께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되어 왔다. Rogers(1959)를 시작으로 공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는데(김민지, 2012), Rogers(1959)는 치료자로 하여금 타인의 태도로 살도록 돕기 위하여 공감을 강조하였다(박성희, 1992). 그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감을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이는 공감에 상대방의 내적 세계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인지적 공감과 공감자와 대상자가 분리되는 정서적 공감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충현, 2011).

Rogers(1959)가 공감을 강조한 이후 공감은 학문 분야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먼저 사회심리학자인 Mead(1934)는 공감의 개념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인지적인 요소를 첨가하여 공감적 과정의 핵심을 '공감하는 사람이 잠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역할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 처해보는 것'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김경미, 2011; 신경일, 1994). 또한 아동의 인지 발달을 연구한 Piaget(1932)는 아동의 미성숙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타인에 대한 이해부족을 자아중심성(egocentrism)과 관점수용(perspective-taking) 능력의 부족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아동은 이 자아중심성이 극복되고 탈 중심화(decentering)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자신과는 다른 타인들의 상이한 관점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공감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다(임 정, 2005).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는 공감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정신분석가들은 공감을 정서적 측면에서 정의하였다. Hoffman(1984)과 Eisenberg(1987)등이 공감을 정서적인 관점에서 정의하였는데 그들은 주로 공감을 '대리적 정서경험'으로 정의하고 대상 인물의 정서와 관찰자의 정서가 일치하는 정도로 공감을 측정하였다(박성희, 1997).

반면, 상담 및 심리치료적 관점에서는 상담자의 치료 기술로서 표현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Carkhuff와 Truax(1967)는 공감을 내담자의 현재 감정에 대한 민감성과 내담자의 현재 느낌에 맞추어진 언어로써 이해한 바를 의사소통하는 언어적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공감을 관찰과 측정이 가능하고 수량화할 수 있는 조작적 기능으로 정의하였다(김경미, 2011).

최근에는 공감을 인지적, 정서적, 표현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충현, 2011). Davis(1980)는 공감을 '인지, 정서의 두 차원을 포함하여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Barrett-Lennard(1981)는 공감을 인지적, 정서적, 의사전달적 흐름이 내포되어 있어 이를 단일 차원으로 이해하려면 무리가 생긴다고 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공감의 정의에 관한 수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적어도 공감은 단일 차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차원의 개념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김경미, 2011; 박선하, 김지현, 김정민, 2014; 박성희, 2004).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공감은 ‘타인의 관점이나 역할을 수용하는 인지적 요소와 타인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는 정서적 요소가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감을 상대방의 관점이나 역할을 수용하는 인지적 요소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경험하는 정서적 요소가 포함된 복합적 과정으로 정의한다.

2) 공감능력의 구성요소

공감의 구성요소는 크게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공감은 인지적, 정서적 요소로 분리된 단일 차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박성희, 2004).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를 세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인지적 요소

공감의 인지적 요소란 ‘공감적 정서나 행동을 이끌어내는 지적인 기제나 작용’을 의미한다. 인지적 요소를 지칭하는 주요 개념들에는 ‘감정의 재인, 역할수용, 조망취하기, 상상하기’ 등이 있다. ‘감정의 재인’은 Feshbach(1975)가 공감의 필수적인 선행인지 조건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상대의 감정을 인지해 내는 능력을 의미한다(고영희, 2011; 김충현, 2011). 즉,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하게 재인해내기 위해서는 언어적 내용, 상황적 단서, 비언어적 단서 등에 민감해야 한다.

Mead(1934)는 공감을 ‘타인의 역할을 취해보고, 대안적인 관점을 취해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역할 취하기를 역할 내용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김경미, 2011). ‘지각적 역할 취하기’는 주어진 어떤 대상이 물리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상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역할 취하기’는 다른 사람의 생각, 동기, 의지 등

을 추론하는 능력이며 ‘정서적 역할 취하기’는 다른 사람이 체험하고 있는 정서적 반응을 추론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고소미, 2007).

공감의 인지적인 요소를 부각한 연구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Piaget(1932)를 중심으로 한 인지발달적인 입장이다(고영희, 2011). Piaget(1932)는 공감능력의 발달을 ‘아동의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탈 중심적인 사고로 전환하면서 발달한다’고 주장하며 공감 개념은 탈 중심적 사고가 가능한 7세 이후에 형성된다고 하였다. Piaget의 후계자들은 탈 중심화의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인 지향적인 차원에서의 역할 취하기 기능(roletaking skill)을 강조했다(박성희, 1997). Piaget(1932)나 Mead(1934)의 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의 의도나 느낌을 정확하게 식별해 내는 것만으로는 공감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식별이 성취되는 인지적 과정으로서의 탈 중심화 또는 역할 취하기가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역할 취하기의 과정적 특징을 강조하기 위하여 등장한 개념이 ‘사회적 조망 취하기’라고 할 수 있다. Davis(1980)는 공감의 인지적 특성을 ‘조망 취하기’와 ‘상상하기’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들을 개발한 바 있다. 조망 취하기는 인지적 역할 취하기와 정서적 역할 취하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되고 상상하기는 조망 취하기보다 더 자유롭게 상상하고 추론하는 과정을 지칭한다(박성희, 1997). 조망 취하기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인 관점을 이해하려는 경향성을 의미한다면, 상상하기는 허구적인 상황에서의 자신의 느낌을 상상해 보는 경향성이라 할 수 있다(박학서, 2006).

공감의 인지적 특성을 나타낸 여러 용어 속에서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공감이 감정이나 동기를 인지해 내는 기능과 관련된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 지적인 추리와 상상력이 동원된다는 점이다. 즉 공감을 구성하는 인지적 요소란 타인이 느끼는 바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거나 이해하는 것으로 아동이 성장하며 인지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함께 발달한다고 할 수 있다.

(2) 정서적 요소

공감의 정서적 요소란 공감에 의한 정서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한중순, 2005). 공감의 정서적 요소는 ‘정서의 공유, 정서적 공명, 정서적 감염, 동정, 공감적 관심’ 등으로 불린다(신경일, 1994; 우영혜, 2007).

Lipps(1907)는 공감의 최종 결과를 ‘공유된 느낌(shared feeling)’이라고 하였으며 Hoffman(1984)은 공감을 ‘자신의 상황보다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보다 부합하는 정서적 반응’이라 하였다. Barnett(1982)은 ‘다른 사람의 정서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부합하는 정서의 대리적 경험’이라고 하였으며 Eisenberg & Strayer(1987)는 ‘다른 사람의 정서적 상태나 조건의 이해로부터 촉발된 그와 부합하는 정서적 상태’라고 정의한 바 있다(박성희, 1997). 이상의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는데 첫째, 공감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에 대한 반응이며 둘째, 그 정서반응은 공감 대상자의 그것과 부합하는 것 또는 대리적인 것이라는 의미이다(김충현, 2011; 박성희, 1997).

공감의 정서적 요소와 관련하여 임상심리학자나 상담심리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로 ‘공명’ 또는 ‘반향’이 있다. 이는 공감의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감정적인 일치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Kohut(1978)은 공감을 “인간체험에 대한 인간적인 메아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공감이란 인간체험이 어떤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소리가 공명하듯이 자연스럽게 울려 퍼지는 현상이라는 것이다(김경미, 2011; 박성희, 1997). 공감의 정서적 요소에 대한 이상의 논의들을 보면 공감이란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으로 인해 공감자의 내면에서 촉발되는 정서적 각성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경미, 2011; 김충현, 2011; 박성희, 1997).

따라서 공감의 정서적 요소는 정서적 감염의 개념보다는 좀 더 인지적으로 발전된 수준의 ‘공감적 각성’(박성희, 1997)과 Davis(1980, 1994)의 ‘공감적 관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고통 받고 있는 대상을 보고 자기지향적인 염려나 근심을 느끼는 정서적 반응이 아닌 그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대상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촉발되는 정서적 반응(박성희, 1997)으로서, ‘공감적 각성’은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해 공감적 정서가 각성되는 경향이며, ‘공감적 관심’은 타자지향적인 동정을 느끼고 불행한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경향을 의미한다.

(3) 의사소통적 요소

공감의 의사소통적 요소란 다른 사람의 내적 경험을 공감적으로 이해한 후 정확하고 민감하게 표현하며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강경아, 2004; Carkhuff & Truax, 1967). 공감하는 행위는 타인의 내면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이해한 바를 정확하고 민감하게 전달할 때 완성된다는 주장이다.

Truax와 Carkhuff(1967)는 공감이란 ‘내담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내담자에게 반영하고 되돌려주는 상담자의 언어적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채현탁, 1998), 박성희(1993)는 공감을 이해현상으로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계양식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공감의 의사소통적 요소에 대한 논의는 주로 심리치료와 상담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언어적 표현 외에 비언어적 표현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김충현, 2011). 이는 심리치료나 상담은 상대방과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담자에게 지각된 공감이 내담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표현방식의 측면에서 의사소통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부각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의사소통적 차원의 공감은 다른 사람의 내면적인 세계에 대해 이해한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충현, 2011; 박성희, 1994, 우영혜, 2007).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마음 뿐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의미가 있듯이 공감 역시 혼자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낀 공감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공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은 이러한 표현적 요소가 타인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4. 부모의 양육태도, 정서지능, 공감능력 간의 관계

한 인간의 삶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서지능의 발달은 아동기의 가정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김정원, 2002). Kemberg(1976)와 Bornstein(1993)

등은 정서적 특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부모’라고 주장했으며 Brown과 Dunn(1996)은 정서의 기술적 습득은 정서를 표현하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문용린, 1997). 따라서 가정은 정서지능 발달에 가장 중요한 학습의 장이며 자녀는 정서지능을 부모가 직접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배울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감정과 부부 상호간에 교환되는 감정들을 다룰 때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배운다고 하였다(김영주, 2014; 문용린, 1997).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에 관한 길경숙(2006), 김정원(2002), 한상현(2004)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으로 지각할수록 자녀의 정서지능이 높았으며 거부적, 통제적으로 지각할수록 정서지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지연(2007)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부모가 자녀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며 관심을 갖고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허용적이며 수용적인 자세를 취할수록 아동의 정서지능이 발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한상현(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학생이 부정적으로 지각한 학생보다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났으며 길경숙(2006)의 연구에서도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하영자(200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일수록 자녀의 정서지능이 높았으며 거부적일수록 정서지능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정서지능과 양육태도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중요성만이 강조되었으나(오지선, 2015) 가족형태와 시대적 흐름의 변화로 부모 모두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부모 모두가 못지않게 자녀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Fagan & Palm, 2008)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지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부모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공감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는 성격이나 행동 뿐 아니라 정서,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Berk, 2002),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부모가 보이는 태도

와 행동은 아동의 학습대상이 된다(이지연, 곽금주, 2010; Bandura, 1977). 부모가 자녀에게 인간 지향적 양육행동을 보이면 자녀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을 학습하여 타인 중심의 생각과 입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공감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다(신건호, 2003). 이는 아동의 공감능력이 부모가 보이는 양육태도에 의해 학습되고 상호작용하며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임희진, 진미경, 2014).

또한, 아동의 공감능력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한 사회·정서적 경험을 통해 큰 영향을 받는다(김석연, 우주영, 2017; Hoffman, 1987). 부모는 자녀에게 정서적 표현을 하고,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공감능력의 발달을 촉진시키며(임희진, 2014; Hoffman, 2000), 이렇게 형성된 정서적 토대가 사회적 관계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공감능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부모의 긍정적 감정 표현은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는 자녀의 능력을 증진시키며 사회적 관계에서 감정 표현의 정도와 양식을 터득하게 만들어 공감적 반응을 촉진시킨다(최인호, 김진이, 2013). 반면, 부모의 부정적 통제 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좌절시켜 타인의 욕구나 고통보다는 자신의 불안이나 자책에 관심을 쏟게 하여 공감능력의 발달을 저해한다(김성일, 2008; 임희진, 2014).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감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자율적·애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공감능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정화니, 조옥귀, 2011) 반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공감능력이 적절하게 발달하지 못하게 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조혜리, 2009). 또한,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자율적(강정희, 2008; 김자경, 2014), 수용적(김성일, 2008), 성취·친애적(강정희, 2008; 지소라, 2009; 한승희, 2012), 긍정적(우주영, 2017)으로 지각할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공감능력 발달은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독, 과잉간섭, 학대, 방치 등의 양육행동(조혜리, 2009)은 공감능력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모의 양육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이혜린, 도현심, 김민정, 박보경, 2009; 임희진, 2014; 최인호, 김진이, 2013). 그러나 공감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부와 모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다(Barnett, King, Howard & Dino, 1980)는 연구 결과와 최근 양육에 대한 비중이 부에게도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아동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임희진, 2014).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종합해보면 공감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에 의해 학습될 수 있으며, 적절한 양육태도에 의한 정서적 경험으로 촉진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공감능력 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서를 사용하고 정서를 조절하며, 궁극적으로 개인 내적으로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김해연, 2009). 이러한 정서지능은 공감능력의 개발을 통해 더욱 발달될 수 있으며 공감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및 공감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근원(2004)은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알고 역할을 수용하는 인지적 능력을 인지적 복잡성이라 하고, 그 정서를 민감하게 파악하는 또 다른 인지적 능력을 정서적 복잡성이라고 정의한 후, 이 두 요소가 공감 능력 향상에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여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그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공감 능력 향상에 주요한 요소임을 입증하였다. 또한 공감의 과정에서 타인의 상황과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인지적 노력에 의해 정서지능 중 정서에 대한 인식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고 하여 이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을 설명하였다(유진희, 2016). 공감전달이 정서표현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정수경(2000)은 언어적 반응으로서의 공감 전달이 정서표현 갈등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여 공감이 정서표현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해연(2009) 역시 공감이 분노 수준을 낮추고 분노표현 양식을 비폭력적인 형태로 바꾸어준다고 하여 공감이 정서표현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는 분노표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인간은 성장하면서 타인이 나타내는 감정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유진희, 2016). 다양한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범위 안에서 표현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따라

서 타인의 감정을 인식할 때도 표현되는 감정뿐 아니라 표정이나 말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서 상태를 구별하게 된다. Feshbach(1968)는 이것을 타인의 정서 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는데(신경일, 1994), 이는 정서를 상황과 연결시킴으로써 인간관계 속에서 그 정서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정서 지식의 활용 능력(임은혜, 2002)과 유사하다. 따라서 다양한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공감의 인지적 과정과 정서지식의 활용 능력 사이에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김해연, 2009).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과 유아의 정서조절과의 관계를 연구한 문승미(2006)는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를 공감하고 대리적인 정서 반응을 취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이 잘 된다고 보고하였고, Eisenberg와 Fabes(1994)는 유아의 정서 중 특히 분노나 슬픔,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대해 부모가 공감해 주지 않으면 유아의 안정감이 감소하고 그 결과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김해연, 2009).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공감적 지지의 경험이 정서조절 능력과 상관있음을 알 수 있다.

김해연(2009)은 공감이 정서인식 및 정서표현 능력, 정서의 사고촉진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감정이입 능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종순(2005)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감 능력 수준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공감 능력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보다 정서지능과 그 하위변인 중 정서인식과 감정이입, 정서 활용, 정서조절 능력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밝혀내어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의 관련성을 입증하였다. 공감 및 자기표출훈련 집단 상담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서민경(2006)은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이입과 정서활용, 정서조절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여 공감교육을 통해 정서지능의 하위변인들이 향상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감은 정서지능의 하위 변인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감능력은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의 높은 공감능력은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동시에,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공감능력이라는 특성이 두 변인간의 매개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높은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에 기여하고 이 때 공감능력은 정서지능의 발달을 돕는 중요한 요인임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봄으로써, 부모양육태도와 공감능력이 정서지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와 대구, 제주도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초등 5-6학년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기 이해가 가능하며 자기보고식 검사를 신뢰롭게 응답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 정서 및 사고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기라고 판단되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유연경, 2012). 조사대상자는 확률표집 방법인 층화무작위 표본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활용하여 670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지역의 초등학교 담당자에게 연구의 취지 및 실시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여 설문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2017년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총 6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650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무응답 또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22부를 제외하고, 총 62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의 <표 Ⅲ-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349명(55.6%), 여학생 279명(44.4%)으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많았다. 학년은 5학년 250명(39.8%), 6학년 378명(60.2%)으로 6학년이 5학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 중인 해당 학교는 ◆◆초등학교가 200명(31.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구○○초등학교 96명(15.3%), 대■초등학교 89명(14.2%), ◇◇초등학교 88명(14.0%), ●●초등학교 65명(10.4%), △△초등학교 53명(8.4%), ▼▼초등학교 13명(2.1%), □□북초등학교 12명(1.9%), 동●초등학교 10명(1.6%), 새▽▽초등학교 1명(0.2%), ▲▲초등학교 1명(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628)

구분		N(=628)	구성비율(%)
성별	남	349	55.6
	여	279	44.4
학년	5학년	250	39.8
	6학년	378	60.2
학교	◇◇초등학교	88	14.0
	△△초등학교	53	8.4
	대구○○초등학교	96	15.3
	대■초등학교	89	14.2
	동●초등학교	10	1.6
	◆◆초등학교	200	31.9
	▼▼초등학교	13	2.1
	새▽▽초등학교	1	0.2
	□□복초등학교	12	1.9
	●●초등학교	65	10.4
	▲▲초등학교	1	0.2

2. 측정도구

1) 부모양육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chaefer(1959)의 이론에 근거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유형을 4차원으로 제작한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제작한 척도를 임선화(1987)와 김충현(2011)이 재편집한 ‘부모·자녀 양육태도 지각검사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양육태도로는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차원 8가지 유형으

로 나누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양육태도를 양극화시켰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자기보고 형식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양육태도의 문항들 중,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항은 역 채점 하였다. 따라서 각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부와 모의 양육태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먼저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는 0.684, ‘자율-통제’는 0.560, ‘성취-비성취’는 0.558, ‘합리-비합리’는 0.567, ‘부의 양육태도 전체’는 0.824로 나타났다.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는 0.729, ‘자율-통제’는 0.652, ‘성취-비성취’는 0.573, ‘합리-비합리’는 0.527, ‘모의 양육태도 전체’는 0.831로 나타났다.

<표 III-2>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628)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부	애정-적대	5	1, 5*, 9, 13, 17*	.684
	자율-통제	5	2, 6, 10*, 14*, 18	.560
	성취-비성취	5	3, 7*, 11, 15, 19*	.558
	합리-비합리	5	4*, 8, 12*, 16, 20*	.567
	전체	20		.824
모	애정-적대	5	1, 5*, 9, 13, 17*	.729
	자율-통제	5	2, 6, 10*, 14*, 18	.652
	성취-비성취	5	3, 7*, 11, 15, 19*	.573
	합리-비합리	5	4*, 8, 12*, 16, 20*	.527
	전체	20		.831

*역 채점 문항

2) 공감능력 척도

아동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Davis(1980)의 대인관계 반응지수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척도(조망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와 Bryant(1982)의 정서 공감 척도(공감적 각성)를 박성희(1997)가 번안하고, 수정 · 보완한 공감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검사는 총 30문항으로 조망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각성 및 공감적 관심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망 취하기는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 서보려는 능력이나 경향성을, 상상하기는 자신이 가상의 상황 속의 인물이 되어 보는 상상력을, 공감적 각성은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으로 인해 공감하는 사람에게 촉발되는 정서적 각성 상태를, 공감적 관심은 상대방에 대한 온정, 자비, 관심 등의 느낌을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조망 취하기와 상상하기는 인지적 공감 요소에 해당하고, 공감적 각성과 공감적 관심은 정서적 공감 요소에 해당한다(유연경, 2012).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자기보고 형식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문항 중 부정적인 의미의 문항은 역 채점 하였다.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공감능력의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는 ‘조망취하기’는 0.677, ‘상상하기’는 0.696, ‘공감적 각성’은 0.811, ‘공감적 관심’은 0.686, ‘공감능력 전체’는 0.890으로 나타났다.

<표 III-3> 공감능력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628)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인지적	조망취하기	5	16, 19*, 22, 25, 28	.677
공감	상상하기	5	17, 20, 23*, 26, 29	.696
정서적	공감적각성	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811
공감	공감적관심	5	18, 21*, 24, 27*, 30	.686
전체		30		.890

*역 채점 문항

3) 정서지능 척도

정서지능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문용린(1997)이 Mayer & Salovey(1997)의 정서지능 모형에 입각하여 한국 상황에 맞게 표준화한 유아용, 초저용, 초고용(초등

학교 3~6학년), 중·고등학생용, 성인용 검사지 중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정서지능 검사도구로서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정서지능을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5개의 하위영역에 대해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자기보고 형식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문항 중 부정적인 의미의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정서지능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는 ‘정서인식 및 표현’은 0.735, ‘감정이입’은 0.779, ‘사고촉진’은 0.747, ‘정서활용’은 0.612, ‘정서의 반성적 조절’은 0.581, ‘정서지능 전체’는 0.861로 나타났다.

<표 III-4> 정서지능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628)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정서인식 및 표현	8	1, 6, 11, 16, 21, 26, 31*, 36*	.735
감정이입	8	2, 7, 12, 17, 22, 27, 32*, 37*	.779
사고촉진	8	3, 8, 13, 18, 23, 28, 33, 38	.747
정서활용	8	4, 9, 14, 19, 24, 29, 34, 39	.612
정서조절	8	5, 10*, 15*, 20* 25*, 30, 35*, 40*	.581
전체	40		.861

*역 채점 문항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3.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기 위해 응답 점수 범위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초등학생 부모의 양육태도(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공감능력, 정서지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능력이 어떠한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공감능력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 (1982)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와 모의 양육태도, 공감능력,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은 다음의 <표 IV-1>과 같다.

주요 변인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점수를 살펴보면, 부의 양육태도 전체 평균은 4.00점, 모의 양육태도 전체 평균은 4.02점, 공감능력 전체의 평균은 3.51점, 정서지능 전체의 평균은 3.56점으로 나타났다. 부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가장 평균이 높은 것은 ‘애정-적대’($M=4.11$, $SD=.646$)이고, 가장 낮은 변인은 ‘합리-비합리’($M=3.83$, $SD=.626$)로 나타났다. 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가장 평균이 높은 것은 ‘애정-적대’($M=4.12$, $SD=.672$)이고, 가장 낮은 변인은 ‘합리-비합리’($M=3.83$, $SD=.653$)로 나타났다. 양육태도 수준은 부의 양육태도보다 모의 양육태도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중, 가장 평균이 높은 것은 ‘공감적 각성’($M=3.56$, $SD=.575$)이고, 가장 낮은 변인은 ‘상상하기’($M=3.39$, $SD=.800$)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가장 평균이 높은 것은 ‘감정이입’($M=3.76$, $SD=.638$)이고, 가장 낮은 변인은 ‘정서의 반성적 조절’($M=3.31$, $SD=.599$)로 나타났다.

자료의 정규 분포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왜도의 절댓값이 3미만으로, 첨도의 절댓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나야 한다(Kline, 1998). 부와 모의 양육태도, 공감능력, 정서지능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을 살펴보면, 왜도의 절댓값은 0.00에서 0.88, 첨도의 절댓값은 0.01에서 0.98의 범위로 나타나 변인들의 분포가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량

(N=628)

	하위요인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반응척도
부의 양육태도	애정-적대	4.11	.646	-.88	.98	1-5
	자율-통제	3.98	.566	-.22	-.30	1-5
	성취-비성취	4.07	.594	-.50	-.25	1-5
	합리-비합리	3.83	.626	-.46	.19	1-5
	전체	4.00	.481	-.39	-.40	1-5
모의 양육태도	애정-적대	4.12	.672	-.83	.55	1-5
	자율-통제	4.03	.561	-.17	-.62	1-5
	성취-비성취	4.10	.593	-.59	-.19	1-5
	합리-비합리	3.83	.653	-.39	-.15	1-5
	전체	4.02	.482	-.45	-.40	1-5
공감능력	조망취하기	3.44	.618	.00	.50	1-5
	상상하기	3.39	.800	.02	-.43	1-5
	공감적각성	3.56	.575	.04	-.14	1-5
	공감적관심	3.51	.663	-.14	.08	1-5
	전체	3.51	.524	.09	-.11	1-5
정서지능	정서인식 및 표현	3.52	.591	-.09	.25	1-5
	감정이입	3.76	.638	-.27	-.26	1-5
	정서의 사고 촉진	3.62	.583	-.10	.01	1-5
	정서지식의 활용	3.58	.545	.03	-.36	1-5
	정서의 반성적 조절	3.31	.599	.08	-.24	1-5
	전체	3.56	.409	.05	-.26	1-5

2. 부모의 양육태도, 공감능력, 정서지능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부와 모의 양육태도, 공감능력, 정서지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와 모의 양육태도(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공감능력, 정서지능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2>, <표 IV-3>과 같다.

<표 IV-2> 부의 양육태도, 공감능력, 정서지능 간의 상관관계 (N=628)

변인	부의 양육태도	부_애정-적대	부_자율-통제	부_성취-비성취	부_합리-비합리	공감능력	정서지능
부의 양육태도	1						
부_애정-적대	.855**	1					
부_자율-통제	.684**	.424**	1				
부_성취-비성취	.833**	.677**	.429**	1			
부_합리-비합리	.781**	.567**	.351**	.523**	1		
공감능력	.359**	.294**	.249**	.331**	.259**	1	
정서지능	.399**	.311**	.305**	.361**	.286**	.725**	1

** $p < .01$

부의 양육태도와 공감능력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의 양육태도 전체($r = .359$, $p < .01$), 부의 애정-적대 태도($r = .294$, $p < .01$), 부의 자율-통제 태도($r = .249$, $p < .01$), 부의 성취-비성취 태도($r = .331$, $p < .01$), 부의 합리-비합리 태도($r = .259$, $p < .01$)와 공감능력은 모두 정적 상관을 가진다. 즉 부의 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부가 애정적일수록, 부가 자율적일수록, 부가 성취지향적일수록, 부가 합리적일수록 자녀의 공감능력 수준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의 양육태도 전체($r = .399$, $p < .01$), 부의 애정-적대 태도($r = .311$, $p < .01$), 부의 자율-통제 태도($r = .305$, $p < .01$), 부의 성취-비성취 태도($r = .361$, $p < .01$), 부의 합리-비합리 태도($r = .286$, $p < .01$)와 정서지능은 모두 정적 상관을 가진다. 즉, 부의 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부가 애정적일수록, 부가 자율적일수록, 부가 성취지향적일수록, 부

가 합리적일수록 자녀의 정서지능 수준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 모의 양육태도, 공감능력, 정서지능 간의 상관관계 (N=628)

변인	모의 양육태도	모_애정-적대	모_자율-통제	모_성취-비성취	모-합리-비합리	공감능력	정서지능
모의 양육태도	1						
모_애정-적대	.847**	1					
모_자율-통제	.602**	.298**	1				
모_성취-비성취	.840**	.672**	.371**	1			
모-합리-비합리	.802**	.606**	.274**	.561**	1		
공감능력	.361**	.332**	.200**	.318**	.263**	1	
정서지능	.378**	.308**	.232**	.351**	.282**	.725**	1

** $p < .01$

모의 양육태도와 공감능력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의 양육태도 전체 ($r=.361$, $p < .01$), 모의 애정-적대 태도($r=.332$, $p < .01$), 모의 자율-통제 태도 ($r=.200$, $p < .01$), 모의 성취-비성취 태도($r=.318$, $p < .01$), 모의 합리-비합리 태도 ($r=.263$, $p < .01$)와 공감능력은 모두 정적 상관을 가진다. 따라서 모의 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모가 애정적일수록, 모가 자율적일수록, 모가 성취지향적일수록, 모가 합리적일수록 자녀의 공감능력 수준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의 양육태도 전체 ($r=.378$, $p < .01$), 모의 애정-적대 태도($r=.308$, $p < .01$), 모의 자율-통제 태도 ($r=.232$, $p < .01$), 모의 성취-비성취 태도($r=.351$, $p < .01$), 모의 합리-비합리 태도 ($r=.282$, $p < .01$)와 정서지능은 모두 정적 상관을 가진다. 따라서 모의 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모가 애정적일수록, 모가 자율적일수록, 모가 성취지향적일수록, 모가 합리적일수록 자녀의 정서지능 수준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의 공감능력과 정서지능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은 정적 상관($r=.725$, $p < .01$)이 나타났다. 따라서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관분석의 결과에서 변수 간 상관계수가 0.9 이상이면 두 변수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들 간에는 상관계수 값이 0.9 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공차한계 값이 1 이하, VIF 지수는 1.042 ~ 1.149인 10 미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매개모형 분석에서 부와 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서지능 관계에서 자녀의 공감능력이 매개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본다.

3.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1) 부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부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4>와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IV-1>과 같다.

<표 IV-4> 부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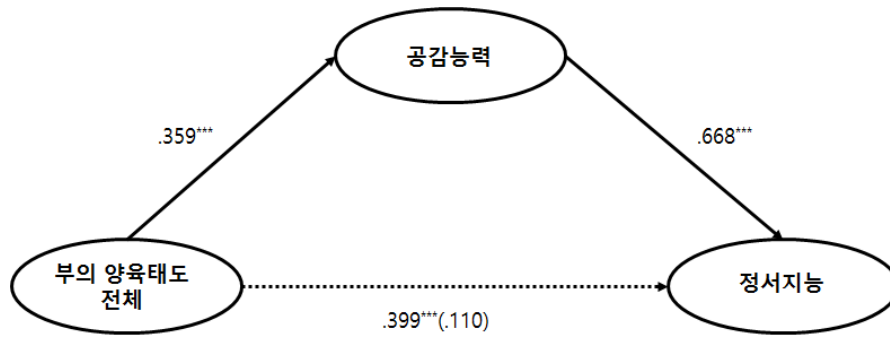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F	B	SE	β	t
1	부_양육태도 전체	공감능력	.127	92.482	.391	.041	.359	9.617***
2	부_양육태도 전체	정서지능	.158	118.572	.339	.031	.399	10.889***
3	부_양육태도 전체	정서지능	.546	378.306	.136	.024	.110	1.305
		공감능력			.521	.022	.668	23.164***

*** $p < .001$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부의 양육태도가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양육태도는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359, p<.001$),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부의 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양육태도는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399, p<.001$),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지능을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부의 양육태도와 공감능력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감능력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부의 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beta=.110, p>.05$), 매개변인인 공감능력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668, p<.001$). 이 때 부의 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3단계에서는 부의 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 공감능력은 부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서지능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인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8.846, p<.001$). 이것은 부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은 부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서지능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V-1> 부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완전매개효과

(1)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 효과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5> 과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IV-2>와 같다.

<표 IV-5>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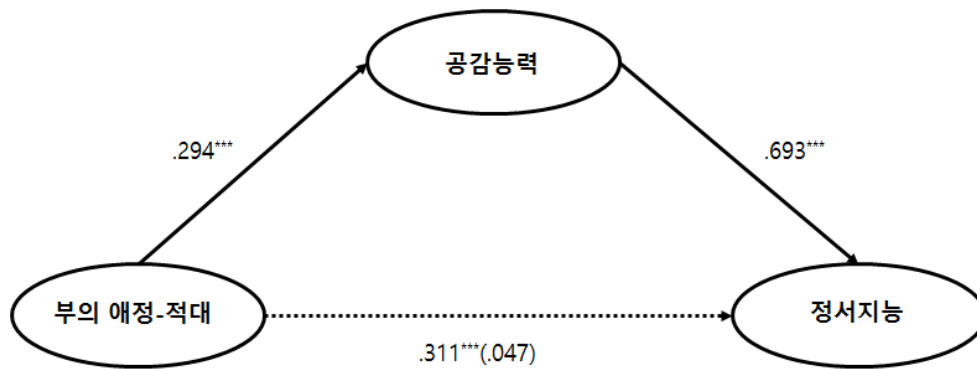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F	B	SE	β	t
1	부_애정-적대	공감능력	.085	59.343	.239	.031	.294	7.703***
2	부_애정-적대	정서지능	.096	67.207	.197	.024	.311	8.198***
3	부_애정-적대 공감능력	정서지능	.535	360.971	.068 .541	.018 .022	.047 .693	.766 24.318***

*** $p < .001$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가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는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294$, $p<.001$),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는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311$, $p<.001$),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가 자녀의 정서지능을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와 공감능력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감능력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beta=.047$, $p>.05$), 매개변인인 공감능력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693$, $p<.001$). 이 때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3단계에서는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가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 공감능력은 부의 애정-적대 태도와 자녀의 정서지능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와 정서지능과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Sobel 검증을 사용하였다. Sobel 검증 결과,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Z=7.356$, $p<.001$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완전매개효과

(2)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6>과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IV-3>과 같다.

<표 IV-6>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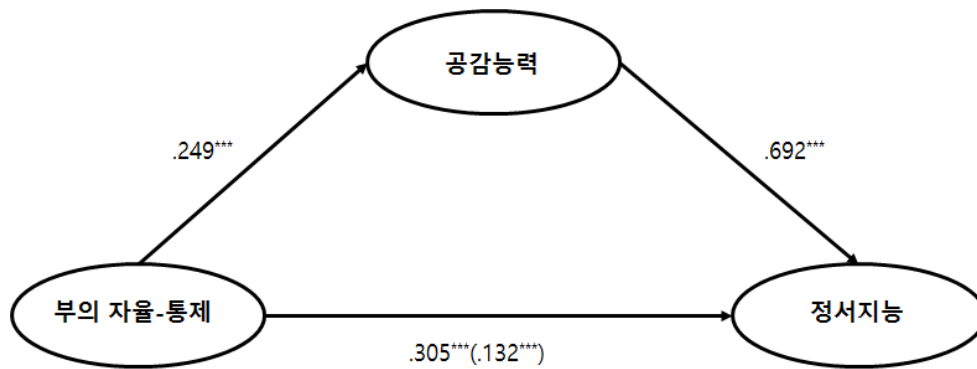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F	B	SE	β	t
1	부_자율-통제	공감능력	.061	41.516	.231	.036	.249	6.443***
2	부_자율-통제	정서지능	.091	64.001	.220	.027	.305	8.000***
3	부_자율-통제 공감능력	정서지능	.540	369.509	.095 .540	.020 .022	.132 .692	4.721*** 24.749***

*** $p < .001$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가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는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249$, $p<.001$),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는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305$, $p<.001$),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가 자녀의 정서지능을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와 공감능력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감능력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132$, $p<.001$), 매개변인인 공감능력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692$, $p<.001$). 이 때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305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3단계에서는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이 .132로 낮아졌으므로 공감능력은 부의 자율-통제 태도와 자녀의 정서지능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와 정서지능과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Sobel 검증을 사용하였으며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Z=6.208$, $p<.001$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 부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부분매개효과

(3) 부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부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7>과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IV-4>와 같다.

<표 IV-7> 부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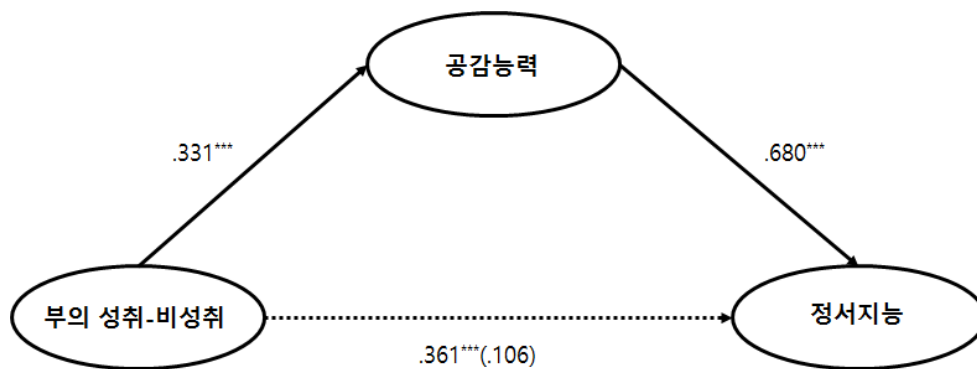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F	B	SE	β	t
1	부_성취-비성취	공감능력	.108	77.148	.292	.033	.331	8.783***
2	부_성취-비성취	정서지능	.129	93.899	.248	.026	.361	9.69***
3	부_성취-비성취	정서지능	.540	369.689	.094	.020	.106	1.339
	공감능력				.530	.022	.680	23.694***

*** $p < .001$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부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가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는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331$, $p<.001$),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부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는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361$, $p<.001$),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가 자녀의 정서지능을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V-4> 부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완전매개효과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부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와 공감능력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감능력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부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beta=.106$, $p>.05$), 매개변인인 공감능력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680$, $p<.001$). 이 때 부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단계에서는 부의 양육

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가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므로 공감능력은 부의 성취-비성취 태도와 자녀의 정서지능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와 정서지능과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Sobel 검증 결과, 부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Z=8.306, p<.001$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부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부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8>와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IV-5>와 같다.

<표 IV-8> 부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F	B	SE	β	t
1	부_합리-비합리	공감능력	.065	44.863	.216	.032	.259	6.698***
2	부_합리-비합리	정서지능	.081	55.941	.187	.025	.286	7.479***
3	부_합리-비합리	정서지능	.534	360.921	.059	.018	.061	1.228
	공감능력				.544	.022	.697	24.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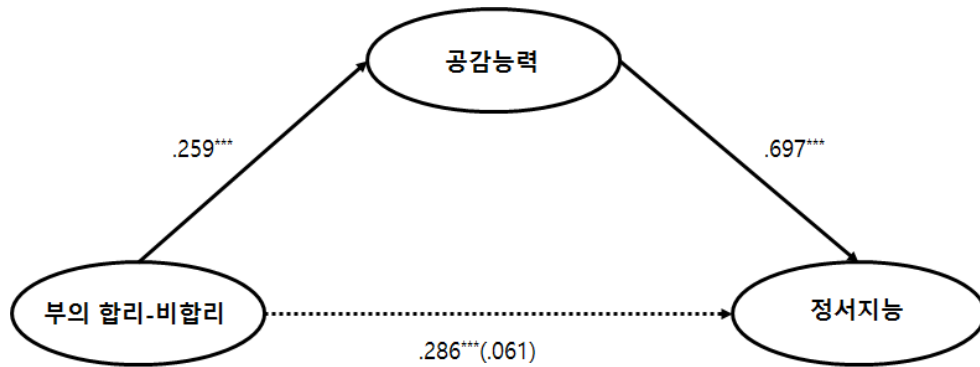
*** $p<.001$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부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가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양육태도 중, 합리

-비합리 태도는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259$, $p<.001$),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부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는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286$, $p<.001$),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가 자녀의 정서지능을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부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와 공감능력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감능력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부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beta=.061$, $p>.05$), 매개변인인 공감능력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697$, $p<.001$). 이 때 부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단계에서는 부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가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공감능력은 부의 합리-비합리 태도와 자녀의 정서지능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와 정서지능과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Sobel 검증을 하였으며 부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Z=6.512$, $p<.001$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5> 부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완전매개효과

2) 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9>와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IV-6>과 같다.

<표 IV-9> 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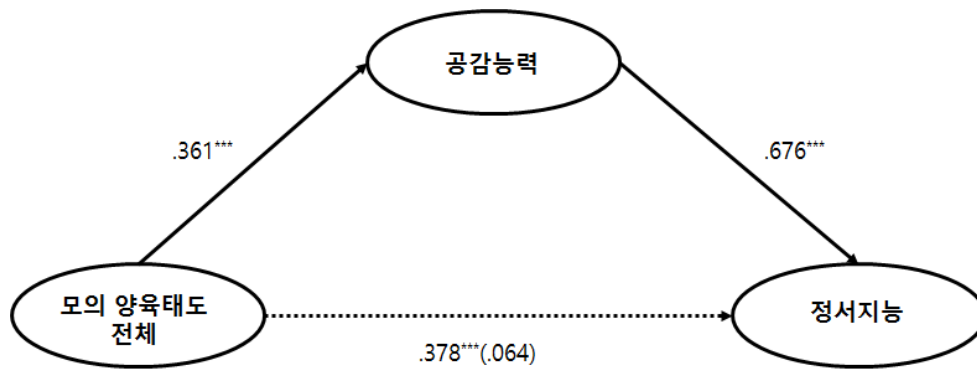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F	B	SE	β	t
1	모의 양육태도 전체	공감능력	.129	93.529	.392	.041	.361	9.671***
2	모의 양육태도 전체	정서지능	.142	104.522	.321	.031	.378	10.224***
3	모의 양육태도 전체	정서지능	.540	368.576	.011	.025	.064	1.196
	공감능력	.527			.023	.676	23.286***	

*** $p < .001$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모의 양육태도가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의 양육태도는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361, p<.001$),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모의 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의 양육태도는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378, p<.001$),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지능을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V-6> 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완전매개효과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모의 양육태도와 공감능력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감능력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모의 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beta=.064, p>.05$), 매개변인인 공감능력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676, p<.001$). 이 때 모의 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단계에서는 모의 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공감능력은 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서지능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인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Z=8.824$, $p<.001$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10>과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IV-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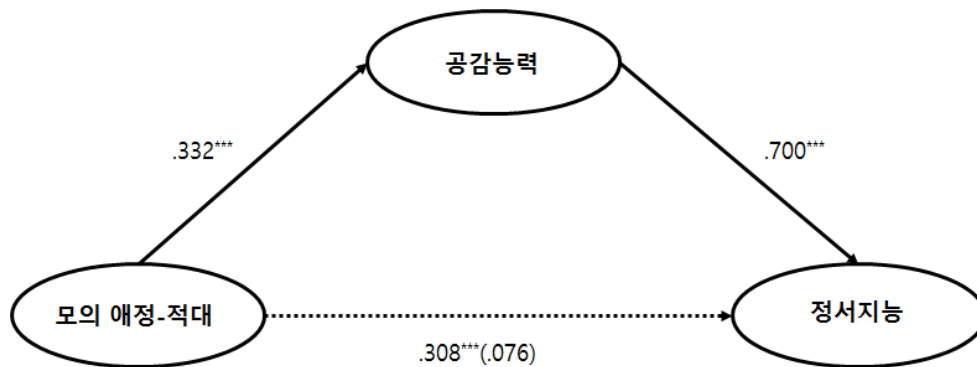
<표 IV-10>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F	B	SE	β	t
1	모_애정-적대	공감능력	.109	77.458	.259	.029	.332	8.801***
2	모_애정-적대	정서지능	.093	65.660	.187	.023	.308	8.103***
3	모_애정-적대	정서지능	.529	353.227	.046	.018	.076	1.391
	공감능력				.546	.023	.700	24.084***

*** $p<.001$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가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는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332$, $p<.001$),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는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308, p<.001$),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가 자녀의 정서지능을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V-7>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완전매개효과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와 공감능력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감능력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beta=.076, p>.05$), 매개변인인 공감능력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700, p<.001$). 이 때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단계에서는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태도가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공감능력은 모의 애정-적대 태도와 자녀의 정서지능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와 정서지능과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Sobel 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 효과는 $Z=8.359$, $p<.001$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11>과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IV-8>과 같다.

<표 IV-11>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와 정서지능이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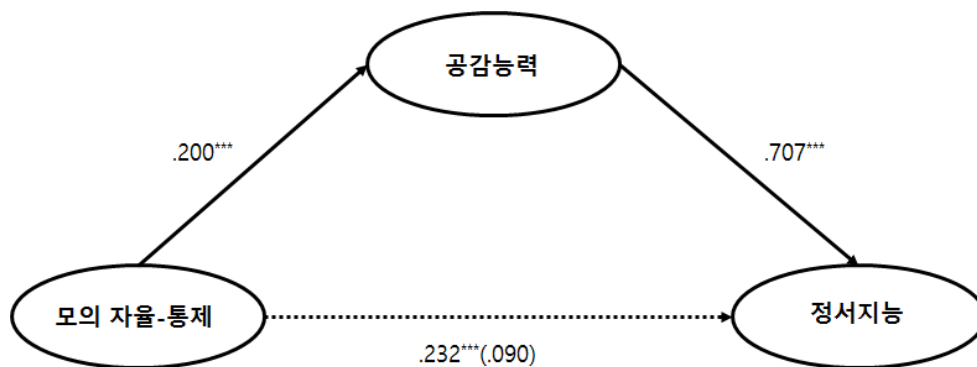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F	B	SE	β	t
1	모_자율-통제	공감능력	.039	26.185	.187	.037	.200	5.177***
2	모_자율-통제	정서지능	.052	35.577	.169	.028	.232	5.965***
3	모_자율-통제	정서지능	.532	357.066	.066	.020	.090	1.854
	공감능력				.551	.022	.707	25.340***

*** $p<.001$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가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는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200$, $p<.001$),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232, p<.001$),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가 자녀의 정서지능을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와 공감능력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감능력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beta=.090, p>.05$), 매개변인인 공감능력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707, p<.001$). 이 때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에서는 모의 자율-통제 태도가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공감능력은 모의 자율-통제 태도와 자녀의 정서지능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와 정서지능과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Sobel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Z=4.954, p<.001$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8> 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완전매개효과

(3) 모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모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12>과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IV-9>와 같다.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모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가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는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318, p<.001$),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표 IV-12> 모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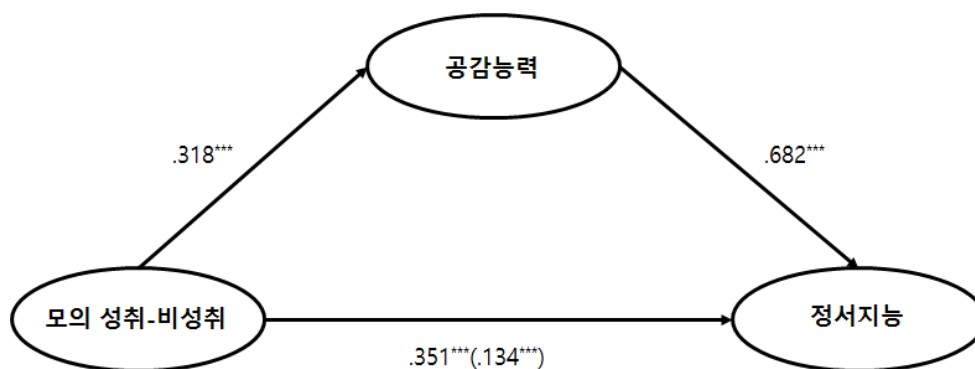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F	B	SE	β	t
1	모_성취-비성취	공감능력	.099	70.240	.281	.033	.318	8.381***
2	모_성취-비성취	정서지능	.121	87.680	.241	.026	.351	9.364***
3	모_성취-비성취	정서지능	.540	369.137	.092	.020	.134	4.683***
	공감능력	.532			.022	.682	23.891***	

*** $p<.001$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모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351, p<.001$), 이는 위

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가 자녀의 정서지능을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모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와 공감능력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감능력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모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134, p<.001$), 매개변인인 공감능력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682, p<.001$). 이 때 모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이 .351, 3단계에서는 모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가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134로 낮아졌기 때문에 공감능력은 모의 성취-비성취 태도와 자녀의 정서지능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와 정서지능과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모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Z=8.032, p<.001$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9> 모의 양육태도 중, 성취-비성취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부분매개효과

(4) 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13>와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IV-10>과 같다.

<표 IV-13> 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F	B	SE	β	t
1	모_합리-비합리	공감능력	.067	46.372	.211	.031	.263	6.810***
2	모_합리-비합리	정서지능	.078	54.151	.177	.024	.282	7.359***
3	모_합리-비합리	정서지능	.533	358.833	.062	.018	.099	1.202
	공감능력	.545			.022	.699	24.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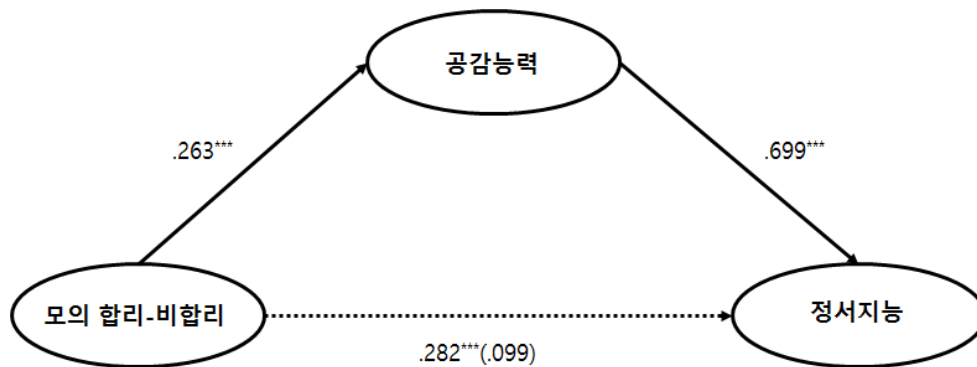
*** $p < .001$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가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는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 = .263, p < .001$),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282, p<.001$),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가 자녀의 정서지능을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와 공감능력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감능력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beta=.099, p>.05$), 매개변인인 공감능력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699, p<.001$). 이 때 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유의하였고, 3단계에서는 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가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공감능력은 모의 합리-비합리 태도와 자녀의 정서지능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태도와 정서지능과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Z=6.563, p<.001$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0> 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비합리 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완전매개효과

V. 논의

1. 결과 및 의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매개효과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을 동시에 살펴 정서지능 향상에 통합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의 제시와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 사이에서 공감능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가정과 학교장면에서 공감능력 발달을 돕는 교육, 상담전략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의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 연구와 관련지어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 공감능력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 공감능력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에서 가정한 모든 변인들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는 공감능력 및 정서지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공감능력은 정서지능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인 집단이라고 인식할수록 정서지능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며(길경숙, 2006; 김정원, 2002; 김충현, 2011; 류지연, 2007; 한상현, 2004),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 때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난다는 강인향(2009), 이영조(2011)의 연구와 자녀가 부모를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라고 인식할 경우에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가진다는 추성경(2011)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수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감능력의 발달을 촉진하며(김성일, 2008), 애정적 양육행동과 친밀감이 아동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장미선과 문혁준(2004)의 연구와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자율적, 성취적,

합리적,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공감능력이 발달하고 촉진된다는 강정희(2008)와 김민지(2012), 김자경(2014), 지소라(2009), 한승희(2012)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면 사회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공감능력과 정서를 통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정서지능이 발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모가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주 양육자로 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이지연, 곽금주, 2010; 이혜린, 도현심, 김민정, 박보경, 2009) 본 연구에서는 모의 양육태도 못지않게 부의 양육태도도 아동의 정서지능과 공감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가정의 형태 및 사회적 변화에 비추어 볼 때, 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공감능력과 정서지능 간에도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에 대해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 결과들이 지지하는 결론이다. 양근원(2004)은 공감의 인지적 요소와 정서지능의 정서인식 능력이 비슷하다고 하였으며 정수경(2000)은 공감이 정서표현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감 능력 수준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를 살펴본 한종순(2005)은 공감 능력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보다 정서지능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하였으며 김해연(2009)은 공감이 정서인식 및 정서표현 능력, 정서의 사고촉진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감정이입 능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공감능력이 높은 아동일수록 정서지능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의 수준은 높아지며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공감능력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부와 모의 양육태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의 애정-적대,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간의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공감능력을 통해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자율-통제, 합리-비합리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간의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아동의 공감능력을 통한 간접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부모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는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매개효과 검증에서 부모양육태도와 공감능력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아동의 공감능력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비해 정서지능에 상대적으로 강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함께 아동의 공감능력도 높아야 한다는 오지선(2015)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아동이 사회적 능력을 갖춘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공감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는 윤세미(2016)의 연구를 지지한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공감을 통해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남은주, 2014; 신희정, 2013; 조연진, 2014)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를 통해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인 부모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아동의 개인 내적 요인인 공감능력을 통해 정서지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아동을 둘러싼 일차적 환경인 가정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는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며 친사회적 행동의 기초가 되는 공감능력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공감능력의 발달은 자신과 타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서를 사용하고 정서를 조절하며, 궁극적으로 개인 내적으로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인 부모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인 공감능력을 통해 정서지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와 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공감능력에 각기 다른 양상으로 작용하여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을 부모양육태도에 대해 부모의 성역할 등에 기초하여 인식하며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각기 다르게 지각하기 때문에 공감능력에 다른 영향을 준다는 김호순, 김청송(2007)의 연구를 지지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 등, 긍정적일 경우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이 높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적대적, 통제적, 비성취적, 비합리적일수록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타인의 불행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며 친사회적 행동의 기초가 되는 공감능력을 발달시키고 아동의 정서지능을 향상하기 위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효과적인 양육태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모의 양육태도 못지않게 부의 양육태도도 아동의 정서지능과 공감능력 발달에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부의 양육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부의 참여와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감능력이 높은 아동일수록 정서지능이 높았으며 타인의 관점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타인의 사고나 생각, 느낌을 판단하는 능력이 발달하여 부모를 포함한 주 양육자에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의 공감능력과 정서지능과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정서지능 향상에 공감능력이 중요한 요인임을 얘기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부모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공감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며 공감능력이 정서지능 향상에 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부와 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공감능력에 각기 다른 양상으로 작용하여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라는 환경적 요인과 공감능력이라는 개인 내적 요인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정서지능 향상에 통합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아동의 정서지능 증진을 위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과 학교장면에서 아동의 공감능력 발달을 돕는 교육, 상담전략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제공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경기도와 대구, 제주도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 공감능력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와 대구, 제주도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5-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러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표집대상의 지역을 보다 광범위하게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높은 외적 타당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양육태도, 공감능력, 정서지능은 연구 참여자가 자각하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즉, 측정도구가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응답자의 반응태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초등 5-6학년이 응답하기에는 문항 수가 다소 많은 것 또한 응답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자기보고식 측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측정환경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공감능력, 정서지능의 관계에 대하여 밝히고, 부모중심이 아닌 아동중심의 공감능력의 중요성을 얘기하였으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할 국내의 선행연구 결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모양육태도, 공감능력,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아동 중심의 공감능력의 중요성을 구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양육태도와 공감능력의 관계에서 성차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Barnett, King, Howard & Dino, 1980)도 있어, 성차의 차이, 가족 형태의 차이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다양한 공감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참 고 문 헌

- 강경아(2004). 공감훈련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또래관계해결 전략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인향(2007). 어머니의 행동유형에 따른 양육태도와 유아의 인성지능발달의 차이. *아동교육*, 17(1), 55-67
- 강정희(2008).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격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소미(2007). 게임중심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 교우관계 및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영희(2011). 공감훈련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친사회적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곽금주(1998). 사회성 발달프로그램 1); 공격성에 대한 사회인지적관점. *발달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자료집*. 32-46
- 곽윤정(1997). 정서지능의 발달 경향성과 구인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곽윤정(2004). 정서지능 교육프로그램 모형 개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곽윤정(2010). 청소년을 위한 정서지능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청소년학 연구*, 17(4), 263-281.
- 교육부(2013). 교육부 2013년 자유학기제 시범정책 안내.
<<http://kids.moe.go.kr/p/main/index.jsp>> 2018.03.09 인출
- 길경숙(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2), 147-164.
- 김경미(2011).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문정(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자(2004). 공감훈련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지(2012).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공감능력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석연, 우주영(2017).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기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및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4(2), 247-261.
- 김성일(2008). 부모의 수용과 청소년의 공감발달. *청소년학 연구*, 5(1), 21-51.
- 김순영(2013). 정서지능 집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주(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의 관계;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자경(201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호남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원(2002).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열린 유아교육 연구*, 2002, 7(3), 247-261.
- 김지혜(2016).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지능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충현(2011).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정서교양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경(2006). 아동의 정서지능과 또래 및 친구관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연(2009).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2009, 22(4), 275-300.
- 김효정(2014). 초등 영재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의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남은주(2014). 아동이 지각하는 부와 모의 공감이 또래 및 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지연(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승미(2006).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과 유아의 문제행동 및 정서조절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1996). 한국 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Peter Salovey 교수 초청 강연 자료집. 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 연구소/서울대 교육연구소.
- 문용린(1997). 종합 진로·적성검사. 서울: 대교 출판부
- 문용린(1999). 인성 교육을 위한 정서지능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 논총, 62, 27-50.
- 문용린(2011). 문용린 교수의 정서지능 강의. 서울: 북스넷
- 박경미, 우남희(1997). 유아기 아동의 문제해결능력과 정서적 안정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8(2), 267-282.
- 박선하, 김지현, 김정민(2014).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2(4), 225-237.
- 박성희(1992). 공감의 특성과 이타행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성희(1997). 공감과 친사회행동. 서울: 문음사
- 박성희(2002).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변인 탐색. 교육학 연구, 40(1), 51-74.
- 박성희(2004).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원미사
- 박성희(2004). 공감학 : 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 박영애, 박인전, 최영희(2002). 아동의 성격특성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학술진흥재단.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23-134.
- 박학서(2006).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아동의 공감능력간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효주(2011). 부모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민경(2006). 공감 및 자기표출훈련 집단 상담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세계일보, 권구성, 김주영 [청소년 氣 살리자] 학교·학원·학원·학원·집...당신의 자녀는 행복할까요? 2018. 04. 04.

- 〈<http://www.segye.com/newsView/20180404005570>〉 2018.04.17. 인출
- 신건호(2003). 어머니와 자녀의 인간지향적관계가 자녀의 조망수용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문과학논집**, 12(5), 87-102.
- 신경일(1994). **상담자 교육을 위한 공감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신희정(2013). **아동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현지(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근원(2004). **인지 및 정서복잡성과 공감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애경(2003). **아동의 정서지능과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행동과학연구노트**, 11(1), 서울: 행동과학연구소.
- 오영미(1997).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지선(2015)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사회적 행동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영혜(2007). **아동이 지각한 의사소통과 공감능력의 관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연경(2012). 성별에 따른 아동의 공감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 25(1). 17-32
- 유진희(2016).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정서지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세미(201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과 또래관계에서 아동 공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귀숙, 정현희(2006). 모의 양육태도가 학령초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문제 행동과 유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3(1), 1-17.
- 이승은, 남은영(2011). 부모의 공감, 아동의 또래관계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간

- 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1(1), 131-151.
- 이영조(201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간이 관계**.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주리(2002). **아동의 정서지능과 관련변인들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65-78.
- 이지연, 광금주(2010). 5세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의 예언변인들: 종단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1), 85-102.
- 이학식(2012). **회귀분석: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서울: 집현전
- 이혜린, 도현심, 김민정, 박보경(2009).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의 매개적 역할**. **한국아동학회지**, 30(2), 97-112.
- 이희연, 장경은(201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 대한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육아지원연구**, 10(1), 5-34.
- 임은혜(2002). **초등학생의 다중지능 및 정서지능 발달특성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 정(2005). **공감중심의 집단훈련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희진(201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희진, 진미경(201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 17(4), 419-438.
- 장미선, 문혁준(2004) **유아의 공감에 관련된 변인 연구**. **대한가정의학회지**, 42(9), 53-66.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학교 학생들의 삶, 어릴 때부터 너무 짝짝해”** 2017. 05. 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24743> 2018.04.17. 인출.
- 정수경(2000). **공감전달이 정서표현 갈등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옥분, 정순화, 임정하(2008). **정서발달과 정서지능**, 서울: 학지사
- 정원식(1974). **교육 환경론**, 서울: 배영사
- 정현진(2010). **독서치료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아동의 공감능력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화니, 조옥귀(2011).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행동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자존감의 역할. **교육이론과 실천**, 21, 87-114.
- 조연진(201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명확성을 매개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리(2009). **양육행동, 공감능력, 분노표현 및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지소라(2009).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공감능력의 관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채현탁(1998). **중학생의 이타행동 증진을 위한 공감훈련프로그램의 효과; 공감 훈련기법을 중심으로**. 계명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서원(2018).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석란(2001). **어린이의 또래관계**. 서울; 다음세대
- 최인호, 김진이(2013).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남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녀 청소년의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1), 81-102.
- 추성경(2011).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지능과 다중지능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추성경(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지능과 다중지능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영재교육연구**, 23(3), 479-499.
- 하영자(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대전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상현(200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정서지능 및 인터넷 중독성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승희(2012).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의 관**

- 계.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중순(2005).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EBS ‘엄마도 모르는 우리 아이의 정서지능’ 제작팀(2017). **아이의 정서지능**. 서울: 지식채널.
- Asher, S. R. & Parker, J. G.(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New York: General Learning Press.
- Barnett, M. A., King, L. M., Howard, J. A., & Dino, G. A. (1980). Empathy in young children: Relations to parents' empathy, affection and emphasis on the feelings of 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6(3), 243-244.
- Barrett-Lennard, G. F.(1982). The empathy scales: Refinement of a nuclear concep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91-100.
- Becker, W. C.(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L.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Berk, L. E.(2002). *Infants and Children: Prenatal through middle childhood*. Massachusetts: Allyn and Bacon.
- Bryant, B. K.(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Carkhuff, R. R. & Traux, C. B.(1967). Training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n evaluation of an integrated didactic and experiential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333-336.
- Cronbach, L. J.(1951). Coefficient alpha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tests, *Psychometrika*, 16, 297-334.
- Davis, M. H.(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103.

- Davis, M. H.(1994).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Madison, Wis: Brown& Benchmark, Publishers.
- Davis, M. H.(1996).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Boulder, Co: Westview Press.
- Eisenberg, N., Lundy, T., Shell, T., & Roth, K.(1985). Children's justifications for their adult and peer-directed compliant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1(2), 325-331.
- Eisenberg, N., & Strayer, J.(1987). Critical issues in the study of empathy. In N. Eisenberg, N., & Strayer(Eds.), *Empathy: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senberg, N., Fabes, ... & Maszk, P.,(1994). Contemporaneous and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from regulation and emotionality, *Child Development*, 68(4), 642-664.
- Feshbach, N. D.(1975). Empathy in children: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Counseling Psychologist*, 5, 25-30.
- Gardner, H.(1983). *Frames of mind :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s.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New York: Bantam Books.
- Hoffman, M. L.(1982). *Development of prosocial motivation: Empathy and guilt*, In Eisenberg-Berg(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251-278.
- Hoffman, M. L.(1987). *The contribution of empathy to justice and moral judgement*, In N. Eisenberg & J. Strayer, *Empathy and its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47-80.
- Hoffman, M. L.(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line, R. B.(1998). Software review: Software programs for structural equation

- modeling: Amos, EQS, and LISREL.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16(4), 343-364.
- Kohut, H.(1978). Introspection, Empathy, and Psychologysis. *Journal of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7, 459-483.
- Lipps, T.(1903). Einfuhlung, innere Nachahmung, und rgan-empfindungen. *Arch. gesamte Psychology*, 1, 185-204.
- Mayer, J. D., Salovey, P.(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21.
- Mayer, J. D., Salovey, P.(1996).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Salovey & D. Sluyter(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 for eductors*. New york : Basic Books.
- Mayer, J. D., Salovey, P.(1997). *The Positive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Snyder, C. R. & Lopez, S. J(Ed), 162,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Mayer, J. D, Salovey, P, & Caruso, D. R.(2000). *Models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R. Sternberg (Ed), Handbook of intellig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396-420.
- Mead, George H.(1934). *Mind, Self and Society* . ed. Charles W. Morris.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ller, T.(1976). The effects of core facilitative conditions in mother on adolescent self esteem,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0, 147-148.
- Piaget, J.(1932).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London; Kagan paul: Trench, Trubner.
- Rogers, C. R.(1959).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 rapep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95-103.
- Rogers, C. R.(1975). Empathic :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5, 2-10.
- Schaefer, E. S.(1959). A circumf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 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chaefer, E.(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of natural, 37*, 414-423.
- Sobel, M. E.(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Leinhardt S, editor. *Sociological Methodology*,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290-312.
- Symonds, P. M.(1949).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 Y: Appleton Century Crafts, 125.

〈Abstract〉

**Mediation Effect of Empathic Ability
on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Attitud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 Students**

Kang Myung Sook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Bo Young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the mediation effect of empathic ability on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attitud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 students. In its initial stage of this study, questionnaire research method was conducted of 670 elementary school students living in Kyung-gi Province, Dae-gu city, and Jeju city. Among the collected 650 copies of questionnaire, the relevant 628 copies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excluding the 22 copies assumed to be irrelevant due to non or insincere response.

In order to measure the scale of parental attitude, the revised version of questionnaire by Lim, Sun-Hwa(1987) and Kim, Choong-Hyun(2011), of which original version was developed by Oh, Sung-Sim and Lee, Jong-Seung(1982). In terms of measuring the scale of empathic ability, two indexes were employed: the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originally developed by Davis(1980) and later translated and revised by Park, Seung-Hee(1997) and

the Index of Empathy, originally proposed by Bryant(1982) and later translated and revised by Park, Seung-Hee(1997). For the purpose of scaling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 standardized testing tool of emotional intelligence for higher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which was developed by Moon, Yong-Rin(1997), was applied.

The collected materials were processed and analyzed through SPSS 23.0. The analysis of frequency was conducted to check out the overall distribution pattern of the materials with the correlation analysis for identify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Additionally, in order to identify mediation effect of empathic ability on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attitud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 students, three-step regression analysis was processed. The Sobel test was also employed for testing the significance of mediation effect.

The summarized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sitive correlation existed between parental attitude,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ic ability. Parental attitude affected empathic abi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an significant and positive manner. Empathic ability affected emotional intelligence in an significant and positive manner. Namely, as the parental attitude of parents becomes affectionate, liberal, reasonable and based on accomplishments, the empathic abi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 students recorded higher marks. Higher empathic ability led to higher emotional intelligence.

Second, the empathic ability on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attitud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 students was verified as complete mediation. In other words, the direct route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emotional intelligence did not prove significant, while the indirect route through child's empathic ability was identified as significant.

Third, the parental attitude on the part of father and emotional intelligence did not have a significant direct route between those two variables. However,

verified was the existence of the indirect route where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 child was affected through empathic ability.

Fourth, the parental attitude on the part of mother and emotional intelligence did not have a significant direct route between those two variables. However, verified was the existence of the indirect route where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 child was affected through empathic ability.

These research results lead to following conclusion.

First, in case that parental attitude is affectionate, liberal, reasonable and based on accomplishments, the empathic abi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 child recorded higher level thereof. Second, as the level of empathic ability of a child is higher, it also shows higher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is more responsive toward principal fosters including parents. Third, it is verified that parental attitude affects emotional intelligence in an indirect way such as through empathic ability, rather than affects it directly. It's also identified that empathic ability has direct influence on emotional intelligenc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be utilized as integrated and basic materials for the improve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because this study considers both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n emotional intelligence. The importance and need of empathic ability on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attitud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hould be highly recognized. Under the environment that the necessity of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counselling programs designed to aiding the growth of child's empathic ability is emphasized at school and home in order to improve emotional intelligence of child,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materials.

Key words : parental attitude, emotional intelligence, empathic ability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초등학생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모님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및 공감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을 읽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 한곳에만 O 또는 V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지를 통해 얻어진 여러분의 대답 내용은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응답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표시할 경우 연구 자료로 사용되기 어려우니,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9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 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교수님
연구자: 강 명 속
mounguk90@naver.com

※ 다음에 인적사항을 적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성별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초등학교 ()학년
2. 나이()세
3. 성별은 남(), 여()

※ 현재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은 누구인지 써 주세요.

()

1.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평소에 여러분을 대해 주시는 태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모님의 태도와 비슷하거나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O나 V를 해 주세요.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나와 다정하게 자주 이야기 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면 내게 맡겨 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3	공부에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 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4	화가 날 때 가족들에게 화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5	내 말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6	나의 말과 행동에 별로 간섭하지 않는 편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7	내가 모르는 것을 물으면 '그것도 모르냐'라고 핀잔을 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8	내가 실수하여 일을 잘못했을 경우에도 애썼다고 격려해 주시는 편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9	내가 질문을 하면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0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나에게 관한 일을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1	새로운 일에 대해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2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도 끈질기게 조르면 귀찮아서 할 수 없이 허락해 버리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3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거의 허락해 주시는 편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4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미리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5	부모님은 모든 일에 열심히 하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6	내게 별을 줄 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7	부모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8	공부나 집안일을 돕는 것 등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맡기십니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9	내가 어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생겨 그 일에 열중해 있으면 엉뚱한 것을 한다고 나무랄 때가 많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0	잘못하게 된 원인이나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꾸중하실 때가 많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 여러분이 부모님과 대화할 때 느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을 잘 읽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O나 V를 해 주세요.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주저하지 않고 부모님께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	나는 때때로 부모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3	부모님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4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께 말씀 드리기가 때때로 조심스럽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5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도 굳이 이야기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시는 편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6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이 어떤지 잘 아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7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즐겁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8	나에게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9	나는 부모님께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0	부모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부모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1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2	나는 부모님께 말대꾸를 하는 편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3	내가 질문을 하면 부모님은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는 편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4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5	부모님께 의논드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있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6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려워하지 않고 부모님께 의논드릴 수 있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7	나의 속마음을 부모님께 터놓고 말씀드릴 수 있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8	부모님은 나에게 성가신 잔소리를 하시는 편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9	부모님은 나에게 모욕감을 주면서 꾸중하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0	어떤 사실에 대해 나의 솔직한 느낌을 부모님께 이야기하기 어렵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3. 다음은 여러분의 성격과 정서에 대한 설문입니다. 자신의 성격 및 태도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O나 V를 해 주세요.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만으로도 기분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내 친구에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내 기분도 속상하다.	1	2	3	4	5
3	나는 일이나 행동을 선택할 때 이후에 일어날 상황과 느낄 감정을 생각해 보는 편이다.	1	2	3	4	5
4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동시에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잘 조절하는 편이다.	1	2	3	4	5
6	나는 그림이나 음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1	2	3	4	5
7	나는 따돌림을 받거나 외톨이로 지내는 아이를 보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다.	1	2	3	4	5
8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기 위해 감정을 잘 조절하는 편이다.	1	2	3	4	5
9	나는 경외심이나 두려움이 복잡한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0	나는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그 일이 잊혀 지지 않고 계속해서 떠오르곤 한다.	1	2	3	4	5
11	나는 친하지 않은 사람의 감정도 잘 파악하는 편이다.	1	2	3	4	5
12	나는 내 친구가 칭찬을 받고 좋아하면 덩달아 기분이 좋다.	1	2	3	4	5
13	나는 꼭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그 일에 흥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	2	3	4	5
14	나는 감정이나 기분이 때로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1	2	3	4	5
15	나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표현하는 편이다.	1	2	3	4	5
16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표현이나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아닌지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1	2	3	4	5
17	나는 거지나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고 안쓰럽다.	1	2	3	4	5
18	나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을 하기 위해 당장하고 싶은 일을 참는 편이다.	1	2	3	4	5
19	나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감정의 차이를 잘 알고 있다.	1	2	3	4	5
20	나는 불쾌한 기분이 들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있다.	1	2	3	4	5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1	나는 나의 감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편이다.	1	2	3	4	5
22	나는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다.	1	2	3	4	5
23	나는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한다.	1	2	3	4	5
24	나는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5	나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다투면 화가 풀리지 않는다.	1	2	3	4	5
26	나는 감정이나 기분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표현하는 편이다	1	2	3	4	5
27	나는 내 친구가 성적이 올라서 좋아하면 축하해주고 싶다.	1	2	3	4	5
28	나는 감정 상태에 따라 내 능력의 발휘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9	나는 짜증과 분노의 감정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0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다른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잊으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31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을 잘 모르는 편이다	1	2	3	4	5
32	나는 거지를 보면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다가보다 지지분하고 무능력하다고 느끼게 한다.	1	2	3	4	5
33	나는 즐거운 기분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잘 해결해본 경험이 있다	1	2	3	4	5
34	나는 분노라는 감정도 정도가 있다는 것을 안다.	1	2	3	4	5
35	나는 우울하거나 슬퍼서 한동안 아무 것도 못한 적이 있다.	1	2	3	4	5
36	나는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갖거나 좋아해도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편이다.	1	2	3	4	5
37	나는 왕따 당하는 아이를 보면 바보 같아 보이고 나도 상대하기 싫어진다.	1	2	3	4	5
38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예전에 유사한 상황에서 내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보곤 한다.	1	2	3	4	5
39	나는 분노라는 감정도 상황에 따라 다른 감정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0	나는 내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잘 내는 편이다.	1	2	3	4	5

4. 다음은 여러분의 공감능력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 느낌과 가깝다고 여겨지는 곳에 ○나 V를 해 주세요. 한 문항도 빠뜨리지 않고 응답해 주세요.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함께 놀 친구가 없어서 늘 혼자 있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슬퍼진다.	1	2	3	4	5
2	기쁘다고 우는 아이는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선물을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선물 받는 것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다	1	2	3	4	5
4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나도 울고 싶다.	1	2	3	4	5
5	다친 아이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1	2	3	4	5
6	다른 사람이 웃는 걸 보면 나도 같이 웃고 싶다.	1	2	3	4	5
7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다가 우는 때가 있다.	1	2	3	4	5
8	다른 사람이 왜 속상해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1	2	3	4	5
9	상처를 입은 동물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1	2	3	4	5
10	어떤 노래는 너무 슬퍼서 듣다가 울고 싶어진다.	1	2	3	4	5
11	개와 고양이를 사람처럼 대해주는 것은 어리석다.	1	2	3	4	5
12	친구가 없는 아이들은 아마 친구가 필요 없어서 그럴 것이다.	1	2	3	4	5
13	슬픈 영화나 책을 보며 우는 사람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1	2	3	4	5
14	내가 과자를 먹고 있을 때 누군가가 줌 주었으면 하고 쳐다보아도 혼자 다 먹는다.	1	2	3	4	5
15	규칙을 어겨 선생님께 벌을 받는 친구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1	2	3	4	5
16	다른 친구를 욕하기 전에, 내가 만일 그 친구라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1	2	3	4	5
17	재미있는 이야기나 소설을 읽을 때, 그 이야기 속의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해본다.	1	2	3	4	5
18	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1	2	3	4	5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9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별로 듣지 않는다.	1	2	3	4	5
20	소설을 읽을 때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이 느낀다.	1	2	3	4	5
21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아도 별로 동정심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1	2	3	4	5
22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능한 한,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3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거기에 폭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1	2	3	4	5
24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면, 정말로 염려되는 때가 자주 있다.	1	2	3	4	5
25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1	2	3	4	5
26	드라마나 영화를 본 후, 내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느낀 적이 있다.	1	2	3	4	5
27	다른 사람이 불행하다고 해서 나까지 마음이 아플 필요는 없다.	1	2	3	4	5
28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잠시나마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9	마음에 드는 영화를 볼 때, 쉽게 주인공의 입장에 서는 편이다.	1	2	3	4	5
30	내 주변에서는 감동스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1	2	3	4	5